



3. 中國出土의 陶壺의 一例

의 漢代의 樣相을 갖은 것인데 器形 그 自體가 보여 주는 바는 特히 戰國에서 前漢代에 걸쳐 盛行한 同國에서의 灰釉의 陶壺와 거의 同形이다. 따라서 美國에서 前漢의 遺品으로 鑑定되었다. 右의 陶器의 一例가 되는 第三圖의 器를 本銅壺와 比較하면 그 同似是 더욱 顯著하며 그 點 등은 없다. 따라서

라서 이 點에서 본다면 南韓出土인 本銅壺는 自然히 中國으로 부터 이 같은 古時代에 器가 舶載된 것으로 되어서 하나의 新事實이 될 것이다. 但 이 銅壺에 있어서 注目되는 것은 同時에 만들어진 그 被蓋가 寶珠鈕로서 그것은 中國에서의 當代의 陶蓋가 대개 鳳獸形鈕인 것과 다르며 그 外形이 보이는 것은 도리어 六朝代로 내려오는 韓半島에서 盛行한 것과 같고 蓋 그 自體에 있어서도 그 같은 觀이 注目되는 바이다. 그런데 現在 아직 中國本土에 있어서는 本銅壺와 같은 鑄銅品은 數 많은 陶壺와는 달리 거의 知見을 缺하고 있다. 따라서 單純히 이것을 古中國에서의 鑄造品으로 斷定해 버리는 것이 當치 않음이 다시금 생각된다. 그리하여 器 自體가 보여 주는 南韓出土의 이 보기 드문 完好의 有蓋銅壺는 器는 오랜 中國에서의 陶質品과 같기는 하지만 蓋形으로 보아서

그 鑄造는 後者에서 推定되는 時期일 것이며 또 元來 半島南部에 오랜 前漢代의 陶壺가 中國에서 舶載珍重되던 것이 있어서 그것이 蓋가 보여 주는 六朝時代에 半島에서 鑄造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推測되는 바이다. 그렇다면 이 一個의 銅壺는 器가 珍貴할 뿐 아니라 遊離된 것이기는 하나 널리 上古의 南韓의 文物觀에의 新資料임이 强하게 意識되는 바이다.

(이 論文은 圖版과 함께 八月初 本會로 送付된 것을 黃壽永 金禧庚 兩人이 譯載하는 바이다.)

金海郡의 佛蹟

朴敬源

金海郡은 이웃 어느 地域보다도 新羅 以前의 佛教關係 文化財가 稀貴한 곳이다.

지금 首露王陵 境內에 있는 石燈臺石 一基가 알려져 있는 郡內唯一의 新羅時代 遺物인데 이것조차 그 由來에 對하여는 一切 아는 바가 없다.

(註) 이 臺石은 直徑 一七二cm 一邊 六〇cm 高五〇cm의 八角臺石으로 從來 佛像臺座로 紹介되어 왔으나 石燈臺石으로 분이 옳겠다. 極히 優麗한 八葉의 佛蓮에는 統一新羅期의 特徵이 잘 表現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郡內各地의 大小寺院에는 으레 「駕洛國 首露王 創建」이니 「首露王兄 長遊國師 創立」云云하는 傳說이 附會되어 거의 例外가 없다 싶이 되어 있는 것도 金海郡에 限한 特殊한 現象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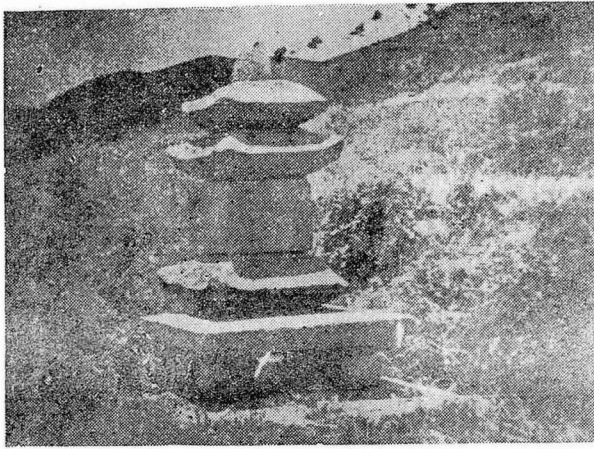
筆者는 지난 六月初旬 慶南教育委員會 文化財事務 擔當者인 裴學錄氏와 같이 지금까지의 未調査地域을 數日間 踏查하여 郡內 佛教遺蹟에 關한 새로운 資料 若干을 얻었으므로 그 結果를 대강 紹介하고자 한다.

- x x x
- 一、二北面 安谷里 三層石塔

解放前 日本人 商人이 解體 運搬하는 것을 洞民들이 다시 찾아 原位에 세운 것이다.

下基甲石	幅	一五八 cm	高	一八 cm
上基甲石	幅	一〇六 cm	高	九 cm
一層屋蓋	幅(下端)	七三 cm	高(約)	三〇 cm
一層屋身	幅	四一 cm	高	三三 cm
二層屋蓋	幅(下端)	六〇 cm	高	二四 cm
三層屋蓋	幅(右同)	五一 cm	高	二一 cm

이와 같은 順序로 쌓여서 一層屋蓋와 屋身이 뒤바뀌어 있고 一、三層 屋身과 露盤以上の 塔頭部가 缺失되었고 下基壇 面石이나 地臺石의 一部는 附近에 埋沒되어 있는 듯하다.



第七卷 第八號 通卷七十三號

塔이나 塔身部의 構造는 寫眞에서 보는 바와 같이 通例型式에서 벗어남이 없으나 屋蓋石은 받침(四段)이 낮고 落水面의 傾斜도 比較的 낮은 편이며 처마는 네 귀에서 사뿐 들었 다. 一層屋身에는 四面에 幅 一三.五 cm 高 一一 cm의 門扉形의 複線으로 陽刻되어 있다.

이 石塔의 附近一帶는 耕地化하여 寺院建物이나 石築等

關係遺物이 全無하나 石塔 自體는 高麗初期의 作品으로 보여진다.

二、二北面 新泉里 三層石塔

前項 安谷里塔이나 다음 凡芳里塔은 從前부터 알려진 遺物인데 이 石塔은 全然모르고 있던 것으로 二北面 安明國民學校 許鑛先生의 敎示에 依하여 偶然히 發見되었다.

釜山과 馬山間의 國道에서 新泉里 望川部落의 뒷 골짜기로 約 三〇〇 m 거리의 높은 논두렁에 一部 塔材가 남아 있는데 이 곳이 原位置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上基壇 甲石과 面石이 地上에 一部分 나타나 있고 그 위에

一層屋蓋	幅	九〇 cm	高	三三 cm
二層屋蓋	幅	七五 cm	高	二四 cm
二層屋身	幅	四五 cm	高	一一 cm

의 順序로 세워져서 二層屋身과 屋蓋石이 전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塔도 倒壞된 것을 收拾하여 되는 대로 쌓아 놓은 것인 듯하다.

各部材도 通例에 따라 別다른 特色은 없고 屋蓋는 比較的 重厚한 편이며 받침은 三段(?)으로 되어 있다.

前項 安谷里 塔보다 若干 큰 듯하나 大略 같은 時期의 作品으로 봐도 無妨할 듯하다.

(註) 이 塔의 周圍가 水짜이고 언덕이 急하여 발부칠 곳이 없어 充分한 調査가 되지 못하였다. 時期를 봐서 再調査할 必要가 있다.

三、長有面 長游庵 浮屠

長游庵은 首露王의 兄 長游禪師가 創建하여 그 舍利浮屠가 現在까지 保存되고 있다는 寺傳이 널리 流布되고 있는 庵子이다.

寺傳의 荒唐함은 그 內容이 스스로 證明하고 있으므로 問題삼을 것도 못되거니와 그런대로 注目할만한 遺物이라도 있지않을까 하고 오래전 부터 關心을 가졌던 곳이다.

庵子는 標高 約 七五〇 m의 龍池峰의 山頂가까운 山中에 있어서 交通이 不便하였으나 近年에 庵子 近處의 고개까지 軍用道路가 開通하여 比



較的 수일하게 되었다.

庵子の 建物들은 모두 近年에 지은 것이라 보잘것 없고 法堂後園에 있는 浮屠는 寫眞에 보는 바와 같이 塔頭部에 石塔의 屋身石과 露盤이 混入되어 異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羅末의 八角圓堂型의 모습을 比較的 忠實히 본 파기는 하였으나 形態와 技法等에 洗練되지 못한點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建立年代는 아마 李朝初期까지도 올라 가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四、葦山面 凡芳里 三層石塔

凡芳里 塔洞部落 뒤 언덕의 발 가운데서 있는데 이 塔의 北쪽 法堂자리로 推測되는 곳은 約 2m 가량 높은 平地로 되어 있으나 築臺나 階段 같은 흔적은 全然 남아 있지 않고 東쪽 一五〇m 가량 떨어진 가 두렁에는 石井이 있으나 主로 自然石을 利用한 것도 特殊한 遺物이라곤 볼 수가 없다.

石塔은 二層基壇 위에 선 典型的인 三層塔인데 現在 上基壇 面石 一、三層屋身、露盤위의 塔頭部가 缺失되었다.

下基壇 幅 一八〇cm 高 四五cm

甲石(四片)……塔水面이 急하다.

上基壇 幅 九〇cm 高 六五cm

甲石(大小三片을) 形으로 잤다 高一八cm
一層屋身 幅 五四·五cm 高 四二·五cm

一層屋蓋 幅 七五cm 高 三九·五cm

(받침 各四段 塔水面은 比較的 急하다)

二層屋身 幅 三九cm 高 一一cm

二層屋蓋 幅 六七cm 高 三三cm

三層屋蓋 幅 四五·五cm 高 一三三cm

塔頭部는 露盤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 塔의 特徵은 二層屋身의 높이와 三層屋蓋의 크기가 急減된 것과 各層屋蓋의 처마가 씩 짧아서 (三cm 가량) 얼핏 模塲塔같이도 보이는 佳作이다. 그 年代는 高麗時代까지 내려야 될런지 모르겠다.

이 塔은 一七年前에 一層 屋身中에서 舍利裝置와 塔基部?에서 佛像一軀를 盜難當하고 그 때에 塔도 破壞된 것을 洞民들이 復舊 했다고 하는 데 믿을만한 이야기라 하겠다. 지금 塔 周邊 二七〇cm 四方의 넓이로 舖石을 한 것도 그때 施工하였다고 한다.

五、其他

(1) 二北面 安谷里 陶窯址

前記 安谷里 石塔에서 東으로 一〇〇m의 거리에 있는 언덕 一帶는

現在 溪川을 끼고 畚이 되어 있는데 相當히 規模가 큰 窯址인 듯하다.

地主들의 이야기로는 논 가운데에 破壞되지 않은 가마(窯)도 있었는데 그 대로 封鎖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胎土가 엷은 淡黃色과



靑白色的磁器片이 많이 나오며 개종에는 언저리가若干 뒤집어진 주발形的의 破片도 섞여 있다.

(註) 近來 釜山地方의 骨董商에서는 이와같은 그릇을 「金海茶碗」이라 하여 팔고 있음을 흔히 볼 수 있다.

(2) 大東面 甘內里 支石墓

大甘國民學校의 南쪽 道路 西側 番中에 高大한 撐石二基가 있는데 一基는 支石의 一部가 露出되어 있다.

(3) 黃山津 附近

三國史記에 有名한 「黃山나루」는 지금 京釜線 勿禁驛 附近에서 對岸上 東面 梅里 사이의 「나루」를 指稱한 것인데 이 나루에서부터 梁山이 六km 金海가 一六km의 距離에 있다.

新羅와 駕洛의 兩勢力이 맨 처음에 衝突한 곳이 바로 이 地點인데 여기서 金海까지는 洛東江으로 흐르는 溪川을 따라 西쪽으로 길게 뻗어 金海邑 三溪洞에 이르는 約三十里의 山峽地帶가 唯一한 交通路가 되어 있다. 이 地帶는 한 때 新羅의 駕洛侵略路로 또 뒤로는 新羅文物의 交流루트로서 重要な 구실을 했을 것이므로 關心을 가지고 調査하였으나 이렇다할 成果를 얻지 못하였다.

高麗 梵鐘의 新例 (其六)

黃 壽 永

昨·今 兩年에 걸쳐서 全國各地의 寺址에서 주로 高麗代의 小鐘이 相當數 出土되어서 博物館과 個人에 收藏되었다. 이같이 近年에 梵鐘 遺例가 增加되고 있는 一因은 京鄕各地에서 볼 수 있는 古鐵蒐集의 盛行인바 그들이 使用하는 소위 地雷探知器具의 威力이라 한다. 이같은 流行은 古代遺蹟의 保存을 위하여 憂慮되는 일로서 그 破壞와 遺物에 대한 關係 知見의 喪失을 招來하고 있는 바 出土器은 비단 梵鐘 뿐이 아니라 銅劍

佛像 金鼓 기타 各種 各代의 金屬品이 包含되고 있다. 一九六四年 八月 本誌에 실은 高麗梵鐘의 新例(其五) 이후 필자가 調査한 遺品을 앞으로 數回에 나누어 紹介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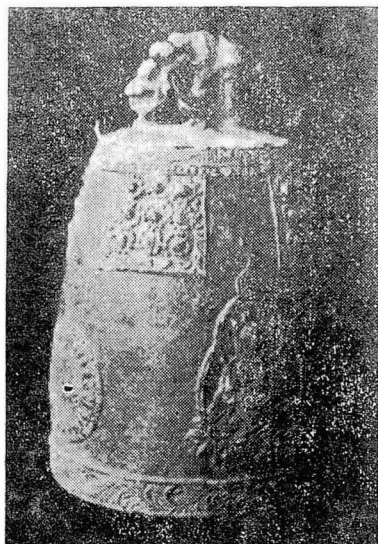
一、傳江原道出土 銅鐘(一九六五年 九月二十一日 調査)

通式的 小鐘으로서 黑色을 보이는 鐘體에 大小三孔이 있는 以外는 거의 完全하다. 上帶(仰蓮花單瓣)와 넓은 下帶(四段稜形帶로서 花紋과 雷紋)가 있고 四乳廓(各九乳)은 上帶에서 分離되었으며 撞座는 乳廓下에 計三座가 있는 바 둥글게 蓮花紋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乳廓 間地에는 撞座와 交代하여 侏儒形(三)과 樂器(?)形(二)가 陽刻되어 있다. 긴 甬筒(高十·七cm)과 龍鈕가 있는 바 鐵銹가 보임은 鐵製縣索으로 因한 듯하다. 全高三二·五cm 鐘高二一cm 上徑一一·五cm 下徑十八·八cm 厚二cm、江原道出土라고만 傳하는 바 紋樣과 鑄造는 精巧하지 못하며 下代作으로 보인다.

(註) 金鼓 一個가 伴出되었는데 通型으로서 徑二六·五cm、表面中央에 裂線이 있다.

二、梨大藏 小鐘

一九六六年 봄에 出土入手한 小鐘으로서 全高十七cm 鐘高十三cm 下徑十·八cm 上徑七·五cm에 불과하나 各部樣式이 具備하며 彫刻 또한 細密하다. 上·下帶에는 細葉唐草紋이 있고 四乳廓(各九乳)間마다 交代로



菩薩合掌形坐像과 圓形蓮花紋撞座가 各二座씩 配置되었는데 鐘 크기에 比하여 過大하다. 鐘肩에 立狀蓮紋이 一部 남았고 甬筒과 龍鈕는 完全한 高麗小鐘의 一優品이다.